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 올해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시책 80세로 상향...10만7천여명 혜택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공공형 계절근로자 작업범위 개선

올해부터 전남지역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행복바우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6000여 명이 늘어난 10만7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APC 등)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마 등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속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외소득 3700만원을 초과하면 용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대상자 선정은 연초 1회 선정에서 연 2회로 개선했

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논의유기·무농약 지원단가는 ha당 25만원씩 인상해 각각 유기는 95만원, 무농약은 75만원으로 올랐다. 논·채소·과수 품목별 유기·무농약 지원단가는 12만~14만원으로 인상해 논은 35만원에서 57만원, 채소는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는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올랐다.

전략작물 직불금 밀의 지원단가는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단가도 개소당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가축분뇨 퇴비사 시설 보강, 장비 구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속 축진 지원한도를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린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연무소독기, CCTV 등 일부 항목도 확대함에 따라 가금증명서 없이 이동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700만원 인상돼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인당 48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공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등을 추진

한다.

전남도는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이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전남도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청 도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시,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

### 실감콘텐츠·게임 등 140명 선발 이론·실무 병행 단계별 교육 실시

광주시는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의 산실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2기 교육생 140명을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세계적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GCC사관학교는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4대 핵심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GCC 사관학교는 1기 교육을 통해 132명의 우수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기업 인턴십 프로젝트에 참가해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했으며 취·창업 개별 멘토링 지원,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해 실무현장에서 뛰고 있다. 광주시는 또 수료 후에도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무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에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https://www.gccaca.kr)을 통해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한다. 실감·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포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3월4일 최종 선발된다.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은 3월17일 개강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온라인 교육과 기본·심화·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총 948시간)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초·심화교육 기간에 하루 최대 2만원의 교육수당, 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기간 매일 최대 60만원의 실습수당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직 실무자 특강 △1대 1 지도(멘토링) △GCC사관학교 페스티벌(취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 인증 라이선스 취득 △우수 교육생 해외 연수 기회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노병하 기자

## 전남산 절임배추, 미국 수출길 올랐다

### 4만6천달러 규모 8.9톤 선적 해외상설판매장 5개점 판촉

전남도는 14일 나주 골든힐에서 4만6000달러 규모의 전남산 절임배추와 김치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 주도로 이뤄진 이번 수출은 전남산 절임배추 6톤을 포함해 포기김치, 알타리 김치 등 총 8.9톤이 선적됐다.

전남 17개 김치 제조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남김치사업협동조합은 남도김치 판촉과 공동급식 등 김치 공급 사업, '남도김치'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 판촉 등 김치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출 또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실이다.

절임배추 수입과 유통을 맡은 한남체인

은 미국 내 전남도 상설판매장 5개소를 운영 중인 한인 전문마켓이다. 이번 전남산 절임배추를 수입해 2월 미국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그기보다는 이미 손질된 배추나 절임배추를 구매해 간편하게 김치를 담그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전남산 절임배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전남도는 절임배추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김치의 날인 11월22일 행사에 절임배추를 지원,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 등을 통해 해외 현지인들에게 남도 김치 문화와 전통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오지현 기자



남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창구 운영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 석정동과 화장동 주민들이 14일 남구 대충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 마련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 창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중수(1~3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건호 기자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업, CES서 성과

### AI 버스·전기차 배터리 관리 선풍 7개 기업 투자상담·기술협력 유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참여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인 2025 CES에서 다수의 성과를 올렸다.

14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육성사업단 참여기업 중 ㈜은성트래시스 등 7개 기업은 지난 7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열린 2025 CES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AI기반 버스 승하차벨 서비스(AI-3B trasys)' 기술 보유업체인 은성트래시스(주)는 도시 교통정책, 도시계획, 대중교통분야 정책 및 운영사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초 단위 도착 정보 제공 △효율적인 배차 관리 △환경 친화성 등을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관계

자들이 혼잡한 대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AI-BIS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또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AI-BIS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에 집중했고 일본, 싱가포르 등은 정밀한 도착 정보와 맞춤형 승객 서비스를 강조한 솔루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 프랑스는 대중교통 운영사가 공동 시범 프로젝트 검토 의사를 보여 향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높다.

또 'AI 머신러닝 및 드론 활용 교차로 관제시스템(ATLAS-DS)' 개발업체인 ㈜우리이엔티는 관련 기술특허를 보유한 미국 스마트스탑(SMART STOP) 설립자와 기술협력을 논의한데 이어 전문언론매체 '뉴스트레일(NEWSTRAIL)'가 이 기술을 취재, 보도하기도 했다.

'스마트분전반·태양광발전소 발전량 예측 및 IoT 스마트 센서 모듈' 개발업체 ㈜아이로드는 미국 내 생산 또는 인증을

위해 1000개의 샘플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는데 이어 다수의 미국기업들로부터 투자 또는 에이전시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능형 센서 기반 공장에너지 고장진단 관리 플랫폼' 개발업체인 ㈜한국에너지데이터는 토요타 북미지사 관계자들과 배터리 안전기술, 디지털 트윈서비스 납품이력과 핵심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상담한데 이어 미국 CTNS, 일본 누보톤(NUVOTON), 현대모터스, ㈜이앤벤처파트너스 등과 생산 협력 및 투자 의향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내부 미세 스파크 스케너' 기술 개발업체인 ㈜엑스피드는 영국, 멕시코, 칠레바이어들로부터 기술구입 문의를 받는데 이어 덴마크, 미국, 한국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투자상담과 응용기술 가능분야 협력, 해외 진출 등을 요청받았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 선정

### 매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활력촉진형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매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문화로 빛나는 오늘, 문화요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

남,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등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월요일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한 힐(heal·치유)요일, 편백숲과 같은 우수한 산림자원과 함께하는 숲요일, 세계생태문화유산인 갯벌과 섬에서 진행되는 갯벌 등 요일이라는 일상적 시간과 주제별로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연결한 프로그램을 진행,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